

행복한 사회복지 세상 만들기

글 : 박 서 춘 _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업회장



어 느덧 우리의 큰 명절 설을 맞이하고 또한 시작의 계절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변화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써 지금도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복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先성장 後분배' 라는 경제 우선의 논리에 의하여 전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은 개도국이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욕구 증대로 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의 증가와 복지 프로그램 및 복지기관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지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양적성장보다 더불어 질적으로도 성장하여야 하나 2005년 1월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결식아동 도시락파문"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사회복지의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사회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들을 배출해 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틀 변화에 따른 수혜대상자와 서비스의 양태도 변화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contents의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 개인과 또한 기관조직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의 질적, 양적향상을 도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는 행복한 복지세상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뛰어 나갑시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되어지는 복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2005년 행복한 사회복지세상을 꿈꾸며 .. 